

12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인도자용/ “제목 : 문을 열라”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327장 · 주님 주실 화평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요한계시록 3장 14-21절 | 다같이

14"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15**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16**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17**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18**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19**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20**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21**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사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1)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16절)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질문2)예수님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까?(20절)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묵상 | 인도자

라오디게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이 온천수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정 없는 믿음과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열심과 열정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물질적 풍요로 자만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과 모직산업, 특별히 값비싼 흑염소 털 코트가 생산되는 도시로 부유했고 풍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역시 물질적 여유를 누리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며 자만했습니다. 그 부요함에 취해 신앙생활의 열정과 열심은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불로 정련된 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순결한 믿음이요, '흰 옷'은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난 의의 열매이며, '안약'은 재물로 어두워진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더는 가진 것이 많다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 저도 아닌 믿음과 행위로 자만하기까지 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건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인지, 듣긴 들어도 귀찮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못 듣는 것인지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문을 열어 맞이하는 날들과 시간입니다.

말씀적용 | 다같이

1.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온천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정도 없고 냉담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2. 대림절은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 나의 신앙생활에서 '문을 열고 내어드려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